

#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 본격화 “안전한 익산 만드는 파수꾼”

### 왕궁면 일대 환경훼손... 복원 위해 축사매입 마쳐 체계적인 자연환경 복원... 모범사례로 거듭날 것

익산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훼손지 복원사업인 '왕궁정착농원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속도를 낸다. 익산시는 지난해 5월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왕궁정착농원 자연환경 복원사업 대상지역을 구체화하는 등 사업추진을 본격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가 주도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은 훼손된 자연환경의 생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생태습지·생태숲·진랑시설, 탐방로, 주차장 등이 조성되고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내용이다. 앞서 환경부는 시급성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지 179만㎡를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왕궁정착농원은 1948년 국가의 강제 격리 정책에 따라 한센인들이 대거 왕궁으로 이주하며 생겨났다. 당시 정부는 이들의 생계를 위해 축산업을 장려했고, 무분별한 축산 확장으로 인해 수질·토양오염, 악취 등 환경훼손이 심각해졌다.

시는 이런 고민을 담아 지난 1월 '왕궁 축사매입부지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방향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환경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공간구성은 △핵심구역 △완충구역 △협력구역으로 구분된다. 생태계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도록 공간모형을 제시한 유네스코 맵에 따른 분류다. 우선 핵심구역에는 만경강-주교제-용호제·학령제에 이어지는 수생축과 이를 둘러싼 산림축을 복원해 동식물의 서식지를 보호, 복원할 계획이다.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을 보호하면서 생태관광, 생태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협력구역은 지역 주민과 조화롭게 공존을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시는 올해 안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방향 수립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 가을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양영진 녹색도시환경국장은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전국 최대 규모의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겠다"며 "왕궁정착농원이 한센인 강제 이주의 슬픈 역사를 딛고 훼손 생태계 복원과 환경교육, 생태관광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는 강영석 부시장이 28일 'CCTV 통합관제센터'와 '교통정보센터'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강 부시장은 센터의 내·외부를 직접 살펴보고 각종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시연이 진행됐다.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은 인공지능(AI)로 객체를 인식하고 분석해 침입, 배회, 쓰러짐 등 사건·사고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감지한다. 해당 영상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표출해 위급 상황을 관제요원이 모니터링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3,200대의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24시간 감시·운영하고 있으며, 12명의 관제요원이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교통정보센터'는 13명이 근무하며 지능형 교통시스템(ITS)과 170대의 주



장차 단독 폐쇄회로(CC)TV, 다이용 버스콜센터를 운영해 익산시민의 안전과 교통 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다. 강영석 부시장은 "CCTV 통합관제센터와 교통정보센터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익산을 만드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자부심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시의회와 새만금 관련 현안 대책회의 개최

정부가 새만금국제공항 등 새만금 사업기간집자본(SOC)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하면서 군산에도 새만금 사업 주요 현안 제점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가장 먼저 군산시는 27일 군산시의회 의장단과 새만금 관련 현안 대책회의를 개최해 세부사항 및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군산시와 의회는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 관련 동향 및 대응 방안 모색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에 따른 시와 시의회 협조사항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외에도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군산시 주요 의견과 새만금개발청의 산업용지 확대 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은 "새만금 사업이 관할권 문제와 기본계획 재수립으로 인해 중요한 기로에 놓인 시점이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동서도로, 군산새만금신항 사수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본계획 수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영재 경제항만국장은 "새만금 사업 관련 이슈가 커지면서 군산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했다"면서 "앞으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결정과 새만금 개발 사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외국인 정책 선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익산시가 외국인 정책 선도를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세미나는 외국인 정책 전문가 10여 명과 강영석 부시장을 비롯한 익산시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초조연구와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임영상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가 '인구위기시대와 지방, 귀환동포 이주민의 주류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기초조연구에 나섰다. 임영상 교수는 이주민 현황을 분석하고 익산 유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방안을 발표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면했다. 이날 세미나는 외국인 정책 전문가 10여 명과 강영석 부시장을 비롯한 익산시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초조연구와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임영상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가 '인구위기시대와 지방, 귀환동포 이주민의 주류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기초조연구에 나섰다. 임영상 교수는 이주민 현황을 분석하고 익산 유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방안을 발표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전과제한 철폐... 모집인원 1723명에 자율적 전공선택 제공

### 국립군산대, '3무(無) 기반 모집단위간 이동제로 학생 선택권 극대화'

국립군산대학교는 국립대 최초로 전과(모집단위간 이동)의 모든 제한을 없애는 파격적인 학사제도를 운영하며 신선한 바람을 불어오고 있다. 기존의 틀을 깨고 학생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3무(無) 기반 모집단위간 이동제도(전과/FRFE)를 2024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였다. 3무(無)는 전과 시 적용되던 학년제한, 인원제한, 횡수제한' 3가지를 모두 없앤 것으로 학생들은 재학 중 언제든 원하는 학과(간호학부 제외)로 자유롭게 전과해 자기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입학정원 10~20% 이내에서 전과를 허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립군산대학교는 2023년 6월 학칙 개정을 통해 1~4학년 전교생이 원하는 학과로 자유롭게 모집단위간 이동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극대화하고, 전공 및 진로탐색 기회를 무제한 제공하는 파격적인 시도이다. 올해 2학기 모집단위간 이동 결과

전과(FRFE) 제도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총 192명의 학생이 전과 신청을 하여 원하는 학과로 자유롭게 이동하였다. 이는 지난해 대비 600% 이상이 증가한 수치로,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고3 학생들은 입시준비에 쫓겨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없이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입학 후 뒤늦게 전공을 바꾸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아 전과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국립군산대학교에서 파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과/FRFE 제도는 전과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학생들의 입시와 동시에 전공선택을 강요받는 부담을 없애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성공적인 전과 선택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지도와 상담이 필요하므로, 국립군산대학교는 모집단위간 이동을 원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아카데미 어드바이저의 상담을 받고

록 하는 안전망을 마련했다. 교원, 조교, 업무담당자, 선배학생, 산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카데미 어드바이저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들은 맞춤형 상담 및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신중하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김효중 교육혁신처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패러다임을 공공지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할 때가 왔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해 극대화한 전과/FRFE 제도 시행으로, 국립군산대학교는 사실상 모집학생 1723명에 대해 자율전공 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동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학업성취도 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전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농산물 개발 대비 교육

익산시가 민관 농정거버넌스 기구인 희망농정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지난 27일 북부청사 강당에서 희망농정위원회 위원 30여 명과 지역 농민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농산물 개발과 시대에 대비해 일본의 선진사례 교육을 진행했다.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위원 장 박철용)는 농업인 단체·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농정거버넌스 기구로 106명의 위원이 농업 정책 등 9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송춘호 전북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일본의 농업경영소속안정 정책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농업인 경영·소득안정에 대한 일본의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농산물 개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외국인 근로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군산시는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산업현장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 법무부에 신청하여 0~1단계 과정을 개설해 이번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사회의 이해 교육과 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은 군산대 국제교류교육원까지 5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매주 월, 수, 목 오후 7시~10시) 총 115시간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가했던 외국인 근로자 18명은 팽일 근무 이후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충도 킬러 이나 제적 없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군산=이재춘 기자